

감사한  
삼아비님께 ♡

2017.1.8. 일

안녕하세요. 저는 청병교회에 다니는 김태연 이에요.  
우리 엄마 아빠 한테 축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큰 축복을  
주셔서 태연, 태민, 태환, 민수 4명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한것 같아  
요. 그리고 저는 태연이랑 같이 성지 묵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 
내려왔어요. 꼭! 내기도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. 교회에서도  
더 기도하고 예배드릴게요. 칭찬공에도 가고 싶어요. 잠들 때도  
기도를 하려는 습관을 들이겠습니다.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  
니다.

태연이가



삼아빠님



삼어머니

